

천관산서 다도해 보고 된장물회 먹으면 더위 썩~

한반도 남단 전남 장흥은 방문객에게 선택의 고민을 안겨주는 고장이다. 기암괴석의 산과 다도해, 1급수 강에서 즐기는 물놀이, 울창한 숲과 천년고찰, 그리고 다양한 식재료의 식도락까지 여행의 재미를 주는 요소들이 풍부하다. 대부분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개방 공간이라 요즘 같은 시기 가족끼리 소규모 여행에 좋다.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곳을 보기보다는 넉넉한 일정으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 느긋하게 머물며 즐길 때 장흥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호남5대 명산’ 천관산 풍광 일품
상선약수마을선 샘물·숲 산책 만끽
보림사엔 400년 된 비자나무 군락도
시원하고 담백한 된장물회도 매력

●**무더위 잊게 하는 가슴 시원한 전망**
기암괴석과 역사공원으로 명성이 높은 천관산(723m)은 장흥 나들이의 필수 코스다. 호남 5대 명산으로 꼽히는 이곳은 정상 바위가 천자의 면류관을 닮았다고 천관산이란 이름이 붙었다. 다도해를 바라보는 전망부터 울창한 억새밭, 다양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보는 맛이 일품이다. 주변에 신라 통영화상이 창건했다는 천관사와 국내 유명 작가의 문학비를 조성한 천관산문학공원이 있다. 정남진 전망대는 서울 광화문의 정남쪽인 장흥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높이 46m로 10층 야외옥상에는 스카이워크가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득량도, 소록도, 연흥도, 거금도 등의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여름 나들이의 고즈넉한 한가로움**
상선약수마을로 불리는 장흥읍 평화마을은 물과 울창한 숲을 테마로 한 농촌테마마을이다. 마을 애칭처럼 억불산



정상의 기암괴석과 다도해까지 바라보는 전망이 일품인 천관산. 장흥 농촌테마마을인 평화마을에 예스런 정취를 더해주는 무계고택, 구수하면서 시원한 국물과 회의 씹는 식감이 일품이 된장물회, 400년생 비자나무 600여 그루가 거대한 군락을 이루어 여름 산림욕에 좋은 보림사 비자림(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자락과 마을 곳곳에 상선약수샘, 서당샘, 중샘, 정자샘 등 다양한 샘물이 있고 억불산 삼림욕장에는 대숲, 동백 숲, 소나무 숲 등이 조성되어 삼림욕과 숲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비자나무, 편백나무 숲길 산책**
인도 가지산 보림사, 중국 가지산 보림사와 함께 ‘동양의 3대 보림’으로 불리는 가지산 보림사 뒤편에는 2009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비자림 숲길이 있다. 400년생 비자나무 600여 그루가 군락을 형성하는데 울창한 숲길을 거닐며 느끼는 여유가 최고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건강에 좋은 파툰치드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나무숲 테마공간이다. 통나무주택, 황토주택, 한옥 등 숲속 숙박시설과 생태건축체험관, 편백소금찜질방 등을 갖추고 있다.

●**남도 여름 식도락의 진수**
장흥 된장물회는 된장국물에 육질이 부드러운 횡갑을 섞어 만든다. 청양고추의 칼칼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담백하다. 원래는 농어새끼, 돔, 뱀장어 등을 가리지 않고 넣지만 식당에서는 대개 농어새끼를 재료로 쓴다. 갯장이 샤브샤브는 장흥 여다지 해변서 잡은 갯장어로 만든다. 대추와 당귀, 엄나무를 넣고 끓인 육수에 갯장어를 살짝 데쳐 간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는다. 장흥을 대표하는 식도락인 장흥삼합은 키조개 판자와 표고버섯, 장흥 한우가 어우러진 보양 음식이다. 정남진 토요시장에 장흥삼합을 하는 집이 많다. 소고기는 따로 구매를 해 음식점에서 삼합 세팅 비용을 내고 먹는 게 일반적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카트라이더 신규 트랙 ‘롯데월드 어드벤처’ 오픈

온라인 캐주얼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에 29일 롯데월드 테마로 한 신규 트랙 ‘코리아 롯데월드 어드벤처’(사진)가 등장했다. 롯데월드와 넥슨이 6월18일 오픈한 어트랙션 ‘월드 카트레이싱’에 이은 양사의 두번째 컬러 버레이션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신규 트랙 코리아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롯데월드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카트라이더 트랙에 반영했다. 레이싱 코스에는 롯데월드의 후렌치레볼루션, 회전바구니 등 다양한 어트랙션들이 등장한다.

HDC리조트, 강원도 여름 보양식 제안



HDC 리조트가 운영하는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와 원주 오크밸리가 여름 보양식 메뉴를 내놓았다. 파크로쉬의 한식

레스토랑 파크 키친은 보양식 인기 재료인 닭과 장어를 활용해 열계구이(사진)와 제피 장어구이를 마련했다. 오크밸리는 여름철 골퍼들의 원기 회복과 스코어 증진을 위한 보양식으로 장어구이와 장어덮밥을 C.C 클럽 레스토랑에서 8월 7일부터 운영한다. HDC 리조트는 HDC 그룹의 계열사로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속초 아이파크콘도, 원주 오크밸리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다, F/W 신상품 얼리버드 프로모션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다가 가을, 겨울 시즌 신상품을 특별 우대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 다양한 가을·겨울 신상품은 물론 톡톡 튀는 컬러의 플리스 자켓 ‘에시앙’과 스테디셀러 다운자켓 ‘슈투키’ 등 대표 제품을 30% 우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아이다는 MZ세대를 겨냥해 트렌디하고 편안한 아우터를 다양하게 출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백화점과 대리점을 포함한 전국 아이다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프로모션 적용 시 마일리지 적립 및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일정 기간(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내 아이다 제품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상품 금액 우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인천 개항장 관광, AI가 길안내 하고 AR이 설명”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온라인 출범
앱 통해 관광객 맞춤 동선·서비스 제공

국내 스마트관광도시 1호 ‘인천 스마트관광도시’가 30일 온라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 인천 스마트관광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등이 예산 88억 원을 들여 10개월 동

안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에 조성했다. 모바일 앱 ‘인천e지’를 이용해 개항장 일대 방문객들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은 인공지능(AI) 기반 여행 추천 서비스를 통해 취향과 선호도에 맞는 패스와 관광 코스를 안내받으며 개항장 일대를 둘러볼 수 있다. 12곳에서는 AR도슨트, AR파노라마와 같은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천 시티투어, 웰미도까지 가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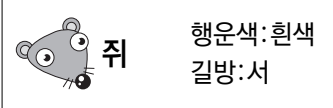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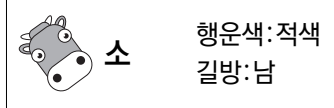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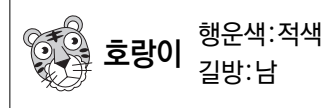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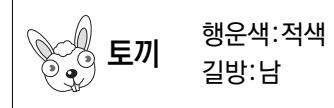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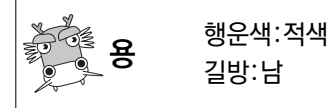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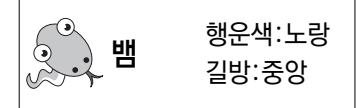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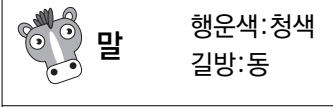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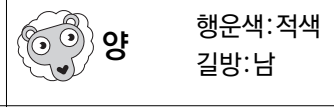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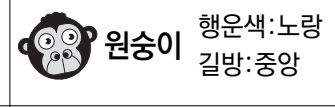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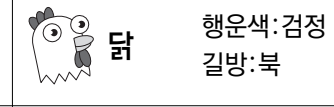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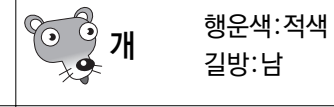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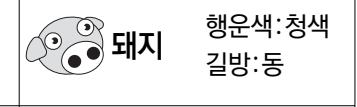
다열차, 개항장 이야기 자전거 등 관광용 모빌리티의 예약과 결제, 짐보관 서비스 이용과 결제, 번역과 사후면제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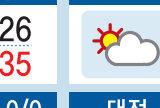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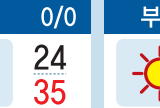
도 제공한다.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영어 등 4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1330관광통역안내 문자채팅 서비스와 연동도 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회원 12억 명을 보유한 중국 메신저 위챗에 인천 미니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까지 전국에 25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은 코로나 19 거리두기를 반영해 30일 오후 2시부터 ‘인천여행마켓’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30일 (금) 음력: 6월 2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활동성이 침체되는 날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이ыл 저ыл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외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우왕좌왕하기 쉬운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너무 서두르지 말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실리를 챙기려 하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피라. 반복적인 일로 피곤한 날이기도 하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가벼운 여행이 도움이 되겠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급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저금년도도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영화감상 등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겠다.				소가 등을 빌릴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내일은 보상받는 날이 되겠다.			

오늘의 날씨				30일(금)	
서울	20/10	인천	10/10	춘천	20/20
	26 35		26 32		25 36
강릉	0/0	대전	20/0	전주	0/0
	25 34		26 34		24 34
광주	0/30	대구	0/0	부산	0/0
	24 32		24 35		25 31
창원	0/0	제주	20/60	지역	간수 화를 (오전/오후)
	24 32		25 32	날씨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3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호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